

농업인 2세 통해 농촌 회생 해답 찾는다

강진군이 기존의 출산·보육 중심에서 교육·일자리 등 분야를 대폭 보완하는 쪽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선회했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의 대표적인 인구정책 모델은 읍면초등학교다.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유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읍면초등학교는 지난 2013년 한차례 폐교 위기를 맞았다. 전체 학생 15명 중 6학년이 6명이나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읍면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무려 43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학생 수가 적어 복식수업을 했던 곳이 2015년부터는 학년별로 학급

강진 읍면초등학교 '산촌 유학' 롤 모델 귀농귀촌인·젊은부모 정착 만족감 높아

을 꾸리게 됐고 공석이었던 자리에 교감도 부임했다. 교사도 9명으로 늘었다.

폐교 위기의 읍면초등학교를 살린 이들은 일명 '산촌 유학생'이라 불리는 도시에서 온 유학생들이다. 2016년 7월, '읍면초 산촌유학센터'가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산촌 유학이 활성화 됐다. 현재 전학생을 포함해 읍면초의 산촌유학생은 무려 16명이다. 중국 유학생 1

명을 비롯해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에서 귀촌가정과 산촌유학을 꾸리는 학생들이 강진으로 모여들고 있다.

읍면초 학생들이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 때문이다. 친환경 건강교육, 힐링교육, 문화·예술·감성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지난해부터는 '힐링산촌체험'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학

생들은 청정자연을 교실삼아 숲체험, 산촌요리,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매주 화·목·토요일 운영되는 '반딧불이 마을학교'는 읍면초등학교의 대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다.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기부로 오후 7시까지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영어·중국어·일본어·공예·놀이수학 등을 가르친다. 학원 역할은 물론 학생들을 저녁까지 돌봐줘 맞벌이 부부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다.

산촌유학을 통해 귀촌한 한 학부모는 "정경자원이 주는 편안함과 교사와 학생간의 긴밀한 밀착관계를 통해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무엇보

다 힐링을 주는 자연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자아를 성찰하고 인격을 성숙시키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 산촌유학의 결정에 대한 만족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읍면초 산촌유학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8 농촌유학 지원 대상'에 선정돼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이에 프로그램 개발비 및 컨설팅·홍보비, 기자재 구입비, 보험 가입비, 교사 인건비(지도, 생활교사) 지원 등 유학생들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산촌유학 홍보 및 산촌학교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

/강진=한태선 기자

내고장 사람들



이동진 진도
군수는 20일 오전 11시 서부북생활관에서 열리는 국제라이온스 3호-B2지구 진도클럽 회장 취임식에 참석한다.



정순주 목포
부시장은 19일 오전 9시 시청 부시장실에서 국소단체 간부 회의를 갖는다.

목포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보조금 63만원...선착순 접수

목포시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목포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일환으로 '2018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260W 미니태양광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면 한달 평균 5,000~6,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목포시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사업비 1억1,600만원 보다 3배 많은 3억6,300만원을 확보해 576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미니태양광 설치비 76만원 중 보조금 63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신청자는 13만원만 부담하면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동주택 거주자로 10가구 이상 공동주택 세대를 우선으로 하며, 시는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서를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관리사무소장은 단지별로 취합해 시에 오는 7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청정에너지 발전장치인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청정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사 010-4601-5323
- 목포 010-3272-2765
011-632-0323
010-3635-6777
- 신안 010-4627-1472
- 영암 010-4624-8409
- 진도 010-3624-4777
- 완도 010-5619-7020
- 해남 010-8181-2627
- 강진 010-6646-1241

완도 해조류 활용 제품 개발 모색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글로벌화 전략 세미나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최근 ㈜식품저널과 공동주관으로 aT센터에서 '해조류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글로벌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완도군은 최근 김이 수출 효과 상품으로 부상하는 등 해조류가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 받고 있는 가운데, 해조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품개발 및 글로벌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조류 수출 현황과 수출 확대 전략(구자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인산수출부장), 해조류

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신제품 개발 방향(유형근 전 한국맥널티 영업마케팅 본부장), 해조류 추출물이 장내 미생물군집에 미치는 영향(윤노 타즈야 제주대학교 수), 해조류 추출물을 이용한 제품화(김진선 한국카라겐 대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와함께 '해양바이오산업의 현황과 미래 : 해조류 관련 연구 및 개발 제품 소개' (안병제 해양바이오연구센터 팀장)라는 주제로 해조류 관련 연구 및 개발 제품인 '구미당김 젤리', '하루면역 AMPM'과 신제품 '알긴그레이트(석류,

유자)' 등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알긴그레이트' 음료는 다시마 추출액과 알긴산이 함유된 최초의 '바다음료'로 지역 특산자원인 석류와 유자 등 두 가지 맛으로 개발됐으며, 7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전남해양바이오연구센터 관계자는 "소비자 필요에 맞는 해조류 및 어패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등을 통해 어민과 기업의 소득 증대를 통한 해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방화 시대에 맞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최규옥 기자



영암군 한 농가에서 최근 신소득작목으로 떠오른 애플수박을 수확하고 있다.

"달콤 아삭 맛 일품" 영암 애플수박 수확

관내 8농가 1ha에 재배
농가소득 증대 기대감 ↑

영암군은 올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애플수박을 선정, 관내 8농가에 1ha 규모로 확대 보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올해 첫 수확은 13일 서호면 이영호 농가에서 시작됐으며 이달 하순까지 차례로 수확 될 예정이다.

이번 수확한 애플수박은 당도 11-12리кс 정도로 달고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다. 기존 수박은 크기가 크고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애플수박은 1.2kg 내외의 소인가구에 적당한 크기로 과피가 얇아 사과처럼 꺾어 먹을 수 있다. 음식쓰레기 배출량도 현저히 적은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

첫 수확한 애플수박은 영암축협(하나

로마트)이나 지역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통당 6,000원, 선물용(2개입/박스) 1만5,000원으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정찬명 소장은 "새로운 소비패턴에 알맞은 애플수박이

지역 신소득 작목으로 정착,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3월 애플수박 재배농가 및 재배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애플수박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영암=최복섭 기자

민주평통 신안군 협의회 통일의견 수렴

민주평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는 18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정광호 협의회장과 자문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2분기 정기회의 및 통일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판문점 선언과 새로운 평화 시대 구현 방안'에 대해 회의 주제 해설 영상 시청과 올해 2차 정책 건의 설문지 작성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기자회견 영상을 시청하고 자문위원 평화메시지 작성, 메시지 작성 개별 촬영과 카드섹션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정광호 협의회장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앞장서 나가자"고 당부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진도 맞춤형 전복양식 관리 교육

진도군이 맞춤형 전복 양식 사육 관리 기술 보급 교육과 지원 등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18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복 어업인 대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남해수산연구소의 박사를 초빙, 전복양식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전복양식 사육 관리 기술 보급 교육을 실시해 수산소득 5,000억원 달성에 기여했다.

올해도 진도군은 전복 양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업인 교육을 19일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원 대화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전복산업의 경기침체와 소비둔화에 따른 문제로 고품질 전복생산

을 위해 전복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육관리 기술보급 교육을 중점 실시한다.

진도군은 올해 여름철 고수온을 대비해 예산 5,000만원을 투입, 전복 가두리 차광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지난 5월 체결한 후 '전복폐사 원인규명과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피해 최소화하고 진도군 전복 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업인 교육 기회 확대 등 수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클릭! 고향 소식



광양제철소 '나눔의 토요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최근 자매마을과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나눔의 토요일'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3,0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EIC기술부 직원들은 진월면 신담마을을 찾아 담벼도 색, 벽화 그리기 및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김학동 소장은 "행복한 광양을 만드는데 광양제철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힘을 모아가지"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광양=정경화 기자



여수 문수복지관 생신잔치

여수시 문수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생일을 맞은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34명을 위해 합동생신잔치를 열었다. 합동생신잔치는 자산어보(문수동 소재) 김경수 대표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임병춘 관장은 "생신날 한번, 한번 축하해 드리지 못해 오히려 죄송스럽다"며 "합동생신잔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담양쌀 이용 간편도시락 교육

담양군농업기술센터는 1인 가구의 건강 식생활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이용 간편도시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생활개선담양군연합회 생활개선운영위원회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에는 전남도립대학교 박연진 교수 지도하에 소고기 초밥 등 요리실습이 진행됐다. 생활개선운영위원회 한 회원은 "간편도시락을 만들어 독거 어르신께 한 끼식사를 챙겨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담양=장동원 기자



보성 사랑의 반찬 나눔

보성군 읍면여성자원봉사회는 최근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회원 30여명은 경로당 24개소 및 마을 10개소, 홀로사는 저소득가정 20세대에 열무김치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김영희 회장은 "앞으로도 행복하고 따뜻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나눔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선상희 기자